

STAFF

무대감독 박준평  
무대기계감독 라경채  
음향감독 이재정, 장현석  
조명감독 박재섭, 황진남  
사진 김영광  
영상촬영 (주)인디유니온  
하우스 매니저 장희현, 최정숙  
티켓관리 및 진행 엠박스  
디자인 흥단

국립무형유산원

제작총괄 김종수  
제작지원 이순미, 이주영  
시설협조 기획운영과

국립무형유산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공연문의 063-280-1500 | WWW.NIHC.GO.KR

2016 국립무형유산원  
송년공연

# 친구 오래사귄 벗

2016. 12. 17 국립무형유산원  
일주마루대공연장  
Sat 4pm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 초대하는 글

2016년 저희 국립무형유산원 토요일상설공연 개막공연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하는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공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송년공연의 주제는 ‘친구, 오래 사귄 벗’입니다.

즐거울 때 같이 나누고 힘들 때 의지가 된 친구처럼,  
지난 일 년 간, 국립무형유산원 무대를 빛내주신 많은 전승자,  
출연자 분들과 그 자리를 지켜주신 관객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올해 세 돌을 맞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돌봐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새해에도 저희는 무형유산의 전승과 활용을 위해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올 한해 국립무형유산원에 오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의 전통 소리와 춤 속에서 같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립무형유산원장  
강 경 환

## 공연안내

### 두 번째 달 | 궁 ost, 구르미 그린 달빛 ost

김현보 기타, 박진우 베이스, 최진경 키보드, 백선열 드럼·퍼커션  
조윤정 바이올린, 이영훈 기타, 고영열 소리

### 동·서양의 하모니 | 판소리 홍보가 中 박타는 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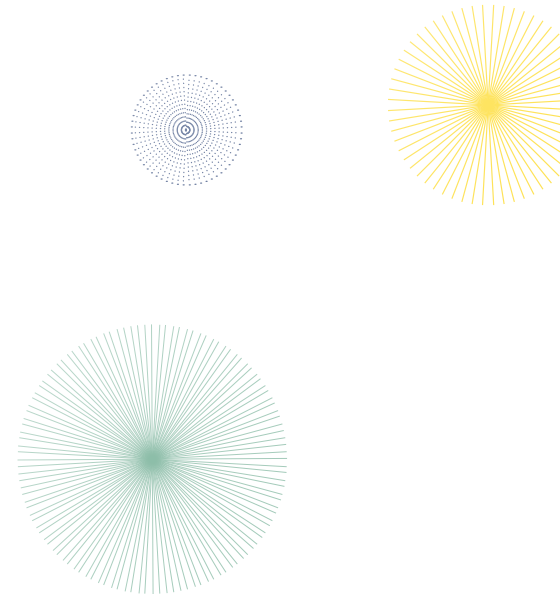
조주선 소리, 진보라 피아노·편곡

### 채상소고춤·덧배기춤

김운태 · 진옥섭

### 전주기접놀이

전주기접놀이보존회



## 두 번째 달



김현보 기타, 박진우 베이스, 최진경 키보드, 백선열 드럼·퍼커션  
조윤정 바이올린, 이영훈 기타, 고영열 소리

知音 두 번째 달은 '세계 각국의 민속음악을 친근한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연주하는 밴드' 라는 슬로건을 걸고 결성된 퓨전밴드이다. 이들의 음악은 국악에 서양의 여러 민속음악인 탱고, 왈츠, 라틴, 팝, 뉴에이지,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해왔는데, 이들의 행보는 민속음악의 대중화에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번째 달은 이영훈·최진경을 중심으로 처음 밴드가 결성 되었는데, 이 둘은 초등학교 때부터 맺어온 30년 지기로써, 진정한 지음知音으로 눈만 마주쳐도 뜻이 통하는 즐거운 밴드이다.

프로그램 궁 ost '궁'  
춘향가 中 사랑가  
어사출두  
구르미 그린달빛 ost '달빛이 흐른다'

## 동·서양의 하모니



조주선 소리, 진보라 피아노·편곡



知音 국악(소리)·서양음악(피아노)의 음악동지가 서로 만나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지는 무대를 마련해보았다. 진보라가 진행하는 방송에 조주선이 출연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다. 음악에 대한 감성이 통하고, 뜻이 맞아 시작하게 된 작업이었다. 각자 분야의 음악역사는 다르지만, 음악이 주는 감동의 공통분모에서 교집합을 찾아내어 재미와 소통의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박타는 대목을 피아노와 소리가 함께하는 무대와 더불어, 송년분위기에 어울리는 곡들로 연주자들이 성심껏 준비해보았다. 이질적인 멋 속에서 동서양의 하모니를 맞출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프로그램 피아노·소리 병주 '판소리 흥보가 中 박타는 대목'  
피아노 독주 '아리랑-세계는 하나'  
소리 '판소리 심청가 中 심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목' - 교수 조용수

## 채상소고춤 · 덧배기춤



김운태 · 진옥섭



知音

현대에 와서 농악의 획일적인 춤사위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춤사위를 통해 재비들의 개인적 기량과 예술성을 선보이는 개인놀이가 발달했는데, 그 가운데 채상소고춤은 무대에서 공연되면서 관중의 열광적 호응을 받았다.

덧배기춤은 경상도 민속춤의 대표적 춤사위를 말한다. ‘덧’의 해석은 ‘거듭’·‘겹’을, ‘배기’는 ‘박이디’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신(地神)을 진압하듯 크게 뛰어 땅을 내리밟는 춤동작에서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탈난 잡것들을 베어 없애다는 원천적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다. 이름 앞에 고유명사를 붙일 수 있다면, ‘김운태’에게는 ‘채상소고춤’일 것이다. 그리고 그의 단짝 친구로서 25년 전 출연자와 기획자로 만난 ‘진옥섭’일 것이다. 서로 뜻이 맞고 죽이 맞아 연희관에서 진한 우정을 다져왔다. 오늘 무대에서 그 우정의 무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프로그램

채상소고춤  
덧배기춤

## 전주기접놀이



전주기접놀이보존회



知音

농사일을 마치는 칠월 백중주간에는 술매이를 열어 농군들을 위로했는데, 전주 이고장 선인들은 여러 마을을 초청하여 합굿으로 대동축제를 벌였고 이것이 전주기접놀이로 발전했다. 전주기접놀이는 예술적 요소를 갖춘 것은 물론, 마을의 단합과 질서, 갈등과 차이를 풀어내는 화합의 장으로 풀어냈다. 최고령 90세부터 가장 젊은 70세 출연자까지, 오랜 세월 함께 놀아본 어르신들이 큰일을 냈다. 반평생 넘게 친구로 마을 공동체문화를 이끌어온 이들은 2016년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통령상을 거머쥐었고, 노익장을 과시하며 오늘의 무대에 당당하게 선 것이다.

프로그램

전주기접놀이